

■ 교육

이런 내용의 대입 에세이는 'NO!'

미국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학 사정 요소는 내신성적(GPA)과 표준화시험(AT, ACT) 성적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에세이와 추천서, 액티비티 등 비교과적 요소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거기서 거기다. 표준화 시험 성적도 매우 우수하다.

결국 차별적 요소는 비교과 영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에세이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표준화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아 에세이와 액티비티, 추천서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공통원서 에세이 주제는 지난 2월에 나왔다. 공통원서 에세이 주제는 7개다. 마지막 주제는 '자유 주제'다. 많은 학생들이 이 자유 주제를 선택한다.

자유 주제로 에세이를 쓰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진부한 주제를 담고 있으면 입학사정관들의 눈길을 끌기 어렵다.

■ 타인을 돕고 느낀 교훈을 어설픈게 적은 에세이

학생들이 많이 쓰는 주제이지만 입학 사정관의 눈길을 붙잡기 힘든 주제다.

많은 학생들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도운 경험과 그 과정을 묘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을 The poors라고 표현하고, 많은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마치 자원봉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식의 표현을 쓴다.

잘 쓰면 좋은 에세이가 될 수 있지만 표현 등에서 매우 조심해야 하고, 진부한 접근보다 시각을 달리해서 쓰는 것이 좋다.

■ 고백형 에세이

많은 학생들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자신의 잘못을 나열하고 이후 그런 어려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다.

자신의 과거 실패나 잘못에 대해 나열하기 보다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는 전개 방식이어야 한다.

마약 복용과 극복 과정을 쓰는 경우도 있다. 결코 입학 사정관들에게 좋은 인상보다 부정적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 이력서 같은 에세이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특별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쓰려고 한다. 이때 연대기적으로 활동 내역을 나열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미 원서의 액티비티 기록란에 모두 썼다. 새로운 것이 없는 정보를 에세이로 쓸 필요가 있을까?

■ 놀라운 깨달음을 표현하는 에세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깨달았다." 라는 내용의 에세이를 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의 과정을 마지막에 '놀라운 깨달음'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지나친 과장은 읽는 이로 하여금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한다.

돈을 내고 에세이 대리 작성을 도모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결코 옳지 못한 것이다. 대리 작성이나 다른 사람이 쓴 에세이를 도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당연히 불합격된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에세이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자신이 써야 한다. 다만 주제 선택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더 좋은 에세이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

제주도 걷기 좋은 곳

사라오름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사라오름은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오를 수 있고, 겨울에는 12시, 봄·가을에는 12시 30분, 겨울에는 13시 전에 입장해야 한다. 13시 이후에는 입장을 할 수 없다. 산세가 험하고 급변하는 일기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사라오름은 성판악에서 출발한다. 한라산을 향해 오르다가 5.8Km 지점에서 곧장 오르면 한라산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오르면 사라오름으로 향하게 된다.

성판악주차장에 마련된 주차 공간은 모두 76대에 불과해 방문객들의 자동차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통 오전 6시 무렵이면 주차장이 꽉 찬다. 성판악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면 제주국제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하고 버스를 타고 와야 한다.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성판악주차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승용차로는 약 10분, 버스로는 약 15분 정도 걸린다.

사라오름 정상에는 산정호수가 있으며 호수를 끼고 왼쪽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온다.

성판악에서 속밭대피소까지 4.1Km, 샨터까지 1.1Km, 사라오름 갈림길까지 0.6Km, 사라오름 정상까지 0.6Km. 편도 6.4Km, 왕복 12.8Km

▶ 성판악주차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516로 1865

▶ 예약: <https://visithalla.jeju.go.kr/main/main.do>

▶ 문의: 064-713-9953



▲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